

대행 스님

부처 중생이 따로 없고 모두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다

마산의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와서 맨바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뭐는 못 하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여러분의 그 길잡이를 맞이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누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가는지 그것을 종잡을 수 없어서 미래의 정신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물질에만 여념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신계를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고, 나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사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마산에 왔으니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문제들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 사람들은 불교라는 것이 만날 미신만 숭상하고 그러는 종교인 줄 알았답니다. 거기에는 일본 불교, 티벳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 통일교의 여러 분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그때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다."라구요. 상점 간판마다 이름이 있듯이 종교도 그와 같습니다. 내 종교가 옳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만약에 귀머거리가 "나는 뇌성벽력이 울리고 천둥이 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천둥 치는 걸 모른다. 그러니 천둥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머거리 아닌 사람이 듣고는 "아, 천둥 번개가 왜 없느냐. 지금도 천둥이 쳤다. 네가 못 듣는 거지."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불교라고 할 때, '불'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가 말하고 서로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도 바로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게 하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똑같으니 그 아픔이 똑같고, 아픔이 똑같으니 부모자식지간 또는 형제지간도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벌레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저런 벌레도 생명이 있고 귀중하지요.

또 한 가지는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근본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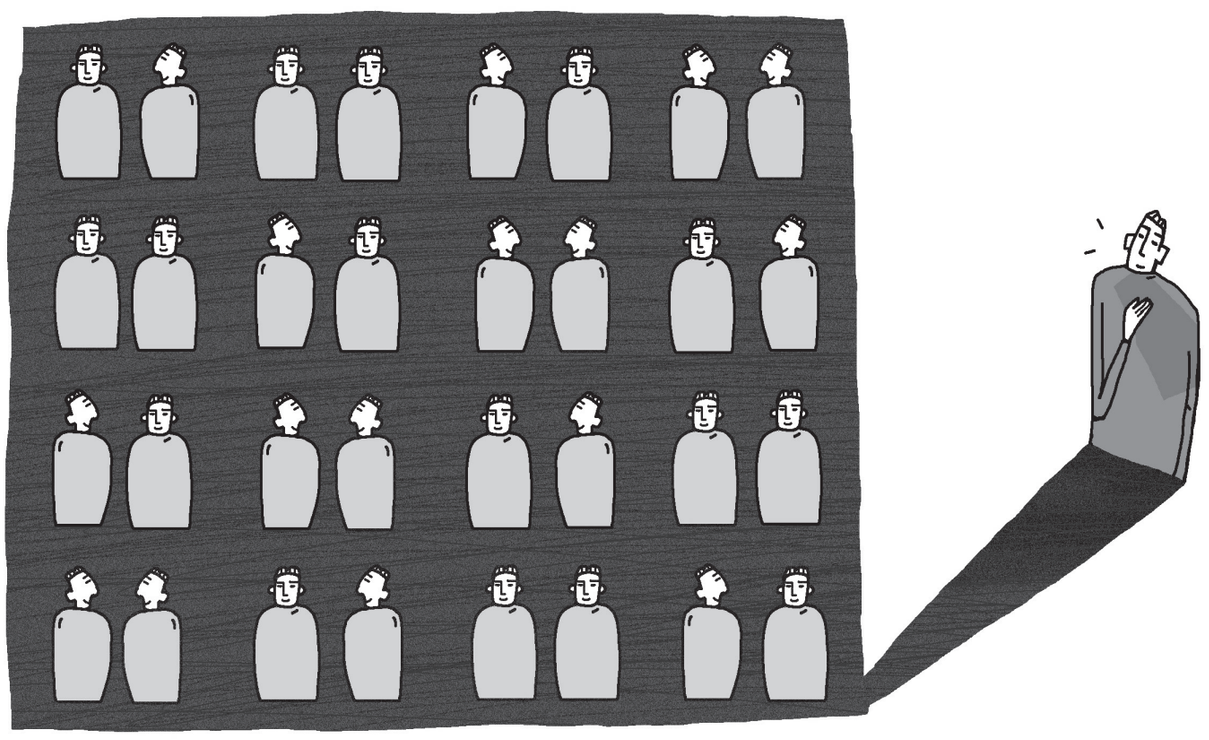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 번째는 우리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이 사실도 또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무상하다고 하지요. 부서지고 깨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죽고,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말하는 이치입니다. 우리 사람 살아나가는 도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직결돼 있는 우리 한마음이 어떻게 돼야 하나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토막토막 끊어서 했는데, 두서없는 말이라고 흉보지 마시고 잘 새겨들으세요. 인연성,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상점에 가서 뭐를 사도 인연이요, 꽃을 봐도 인연이요, 마당을 걸어도 인연이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과 인연이요, 불을 봐도 불하고도 인연이요, 모두가 인연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같이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에 있어서는 크고 작고 못나고 잘나고 높고 낮고 이런 게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지렁이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 만봉봉에 연꽃 피어 싱긋 웃으니
>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집어넣었더라.
> 한마음 도리에 근본이 들었으니
>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모든 생명과
> 모습들은 다 거기에
> 한마음, 한법, 한마당, 바로 한발로
> 디뎠느니라.

그런 이치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수없는 불바퀴가 돌아가고 별성들이 반짝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조그마한 별들이,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뚱이는 지금 스러져 가고 있을 겁니다.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어디서 생겼나? 이게 인과성, 인연성에 대한 얘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인과,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은 모두 여러분 속에 있으니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게 치밀기도 하고, 타의에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이 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전부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을 보신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가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지켜보신다면 미래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선은 거기에 뭉쳐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제법을 설하신 거지요. 고(苦)라는 것이 고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덩어리를 누가 그렇게 지었느냐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나왔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끌어 드리는 공부는, 마음은 체가 없으니 마음과 마음,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라는 겁니다.

'한마음' 하면 모든 내면세계나 외부세계를 한데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거, 마음을 움죽거리는 거, 말 없이 말을 이심전심으로 전달하고 돌아가는 무정물, 식물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마음들이 한데 모여서, 모두 이 안에 있는 생명들의 그 의식들, 마음들이 같이 한데 모여서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마음' 하는 것은 모두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하는 겁니다. 한 부처님께서 한 꽃을 들었을 때에 그 꽃 안에 이 세상만사가 다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서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를 잘 재서 '하나'로 돌아가신다면 됩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봤을 거고, 어떻게 상대성 원리가 있을 거고, 어떻게 부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지, 모든 그 자체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무시요 일종무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발자취를 짊어지고 다니지도 않고, 자취마다 없어집니다. 모든 게 공해서, 말을 했으면 과거로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생각 하나 잘하면 구덩이에서 빼낼 수 있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꼼짝도 못 하게 하는 여러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저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려 한다면 못 벗어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마음으로 집에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올 수 있으시겠죠. 사실 눈 뜨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도 심안으로는 이 세상만사를 다 보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은 세상만사를 다 탐험하면서 다 듣고, 삼라만상 대천세계 그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의 그 말을 이심전심으로 다 듣고 다 움죽거린다고 그랬습니다.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